

호매칼럼



류준식 시인·작사가

밤이면 인민군이 판치고 낮이면 경찰이 주도권을 잡았다. 옆치락뒤치락하며 산골을 찌렁찌렁 울리는 총성에 새 숨 쉬며 설잠 자던 어린 시절. 고요는 철쭉 같은 어둠보다 무서웠고 낮은 언젠 그랬나? 는 듯 회상했다.

그리고 두어 해 지났을까? 하늘바라기 우리학교에도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햇볕이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교실 깊숙이 손을 넣어 안아주는 나른한 오후였다.

“애들아, 오늘은 영철이 장가보내자.”

짓궂기로 첫손을 짚는 강호가 갑자기 큰소리로 동의를 구한다.

아이들은 그가 말끝을 채 거두기도 전에 예전처럼 우레 같은 박수로 제창한다.

여학생들은 ‘끼익’ 대며 우르르 밖으로 몰려나가고 무심코 있다가

달려든 친구들에 붙들린 영철이는 몸부림을 친다.

양말을 얇만 부러도 인해전술에는 속수무책이다. 아랫도리가 막 벗겨지는 찰라 꼬불쳐 넣어두었던 손때 묻은 수첩이 그의 안주머니에서 불쑥 튀겨 나왔다. 한 녀석이 짹하게 펼쳐보더니 차켜 들고 외쳐댄다.

“성자는 영철이 각시란다.”

“성자는 영철이 각시란다.”

몰려든 아이들은 영철이 앞을 막으며 럭비공 돌리듯 수첩을 돌려본다. 거기엔 우리 반 여학생들의 이름이 번호순으로 빼곡히 적혀있었다. 그리고 성자의 이름 옆엔 ‘내 각시’라고 덩그러리게 써 놓았다.

‘아, 이럴 수가’

난 순간 허방에 ‘퐁뎅’ 빠지는 감회를 느꼈다. 영철이에게 선수先수를 빼앗긴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여러 번 쓰고 싶

었는데 미처 그러지 못했다. 어쩌면 내 마음수첩에 그보다 더 많이 썼는지 모른다.

어디 영철이 뻘이겠는가? 그녀는 우리들 모두의 부러움이었는데. 예쁘겠다. 공부 잘하겠다. 성격 좋겠다. 빠진 것 찾기가 힘든 호모의 대상이었다.

막은 내리고 나만의 그녀가 아님을 확인한 그로부터 무수한 날들이 지나갔다.

그때도 내 수첩엔 그녀의 이름이 뚜렷이 남아있다. 지울수록 더욱 전해진다. 고희가 한 고개 너머인데 이젠 놓아주려만.

역겹의 세월이 겹쳐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성자의 이름. 누가 뭐래도 그녀는 영원한 내 각시다.

멀리 보이는 고향 하늘엔 예처럼 조개구름이 잔잔히 피어오르고 있다.

내 각시

지치 않는 꽃

괴알 때 움켜잡고
씨름판을 밟았는데
무릎이 깨어지고 풀 땅이 시퍼래도
천하가내 세상이라 마냥 좋아했었지

클로버 꽃시계를 두 팔에 걸걸 차고
번갈아 굽어보며 뛰놀 던 동네 고샅
그립다내 어린 시절 다시오면 어쩌리

콩밭 무 속아다가 응치게 비벼먹고
먹새우 훑어다가 시래기국 끓인다면
그 맛이 천하일미라 잊지 못할 그 시절

뽕장어 음지 놀던 그 개울 흔적 없고
쭉 뻗은 신작로에 나만 홀로 오희서
저 촌벽 그리운 얼굴
내 너를 불러본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음주운전 사고, 패가망신의 지름길



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지난 4월 스포츠장에서 만취 운전 차량이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여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처벌 강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등 법과 제도 정비를 거듭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음주 교통사고는 평균 1만5천여 건 사망자 263명으로 집계됐고 점차 사고 건수가 줄어들

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7~9%에 달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새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7월부터 스포츠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15년까지 형이 올라가며,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약·약물·음주·무면허·행소니 등 중대 법규위반으로 사고 낼 경우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즉, 한도 내 발생하는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예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재발급이 어려워진다.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도입된 심리검사나 상담·토론에 참여해야 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많으면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에 대해 알아두자



최용식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고돼 온열질환에 바짝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자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수는 80세 이상(6.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령층일수록 온열질환에 더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패가망신으로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기르면 한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온열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이다.

일사병은 심부온도가 37~40도까지 높아지는 상태여서 일사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그늘로 이동해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섭취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회복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내원하는게 좋다.

열사병은 심부온도가 40도를 넘겨 중추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의식이 저하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호흡장애·발작·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 뒤 그늘로 이동해 최대한 옷을 느슨하게 풀어야 한다.

이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얼음이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단 물이나 음료 등 의식이 저하되거나 없는 상태에서는 선불리 마시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응급처치만큼이나 온열질환 예방도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많은 양의 땀이 흘러 체액

을 잃기 쉽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때 시간 꾸준히 보충해줘야 한다.

그리고 가벼운 옷과 햇빛 흡수가 적은 밝은 옷을 선택하고 더운 날 야외 작업 또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하며 페이스 조절을 한다.

이번 여름 온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방법과 예방법을 알아두어 즐겁고 시원한 여름 휴가를 즐기기를 바란다.

Subscrip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onam Maeil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pricing details.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contact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지국안내, 상무, 오치, 지사안내,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영광, 완도, 장흥, 신안, 강진, 장성, 무안, 여수, 함평, 영암, 진도, 해남, 광산.